

# 호남현대사 산증인... 지역민과 애환 함께... 광주일보 63년

1952년 창간호 1면 톱기사 6·25 휴전회담 속보  
4·19, 5·18, 6·10...역사의 고비마다 정론직필  
호남예술제, 3·1절 마라톤 대회 등 지역인재 육성

한마디로 '호남 언론의 역사'인 광주일보가 창사 63주년을 맞았다. 역사의 중요한 순간마다 광주일보는 광주·전남 지역민들의 곁을 떠나지 않았고, 가장 먼저 소식을 전했다. 4·19혁명과 5·16군사정변, 12·12 사태 등 현대사의 굵직한 대변혁의 순간, 정론직필의 정신으로 지역민에게 뉴스를 전달했다. 광주일보는 시대의 화두를 제시하고, 지역 사회의 흐름을 주도하면서 지역민의 사랑을 받아왔다.

광주일보는 '광주일보 100년'의 새 역사를 쓰기 위해 늘 지역민의 곁에서 참된 언론의 길을 갈 것을 다짐한다.

광주일보의 전신인 옛 전남일보보는 한국전쟁 중인 지난 1952년 2월 10일 태어났다. 또 광주일보의 다른 뿌리라고 할 수 있는 옛 전남매일신문은 4·19 직후인 1960년 9월 26일 탄생했다.

두 신문은 1980년 신군부의 강제 언론통폐합 조치에 따라 '광주일보'라는 제호로 다시 창간됐다. 광주일보가 창간일을 4월 20일로 잡은 것은 전신인 옛 전남일보의 법인설립 등기일(4월 20일)에서 시작됐다.

창간호부터 파격적이었다. 휴전회담 기사를 1면 톱으로 보도하면서 시작된 옛 전남일보보는 지방신문으로서의 유례없이 이 순간 독자를 통렬히 비판했다.

또 1960년 4·19 혁명 당시 교문을 박차고 나선 고교생들의 의거 모습을 상세히 보도했으며 '4·19 광주 희생자 조위금 및 위문금 모금'을 주도했다. 4·19 당시 광주 시위의 발포 책임자 규명을 줄기차게 요구하기도 했다.

총칼을 휘두른 군부독재 탓에 언론암흑기인 유신시대에도 정론직필은 시들지 않았다. 74년 10월 25일 긴급조치 1호의 정국속에서도 옛 전남일보 기자 41명은 언론자유실천을 결의하고 임무를 다하려 했다.

1980년 5월 당시 옛 전남일보는 10일간의 휴간이라는 울분을 견딘 끝에 '뺨을 꺾는 아픔을 참으면서'라는 제목의 속간의 말씀을 읽고 광주를 참상을 알리기 시작했다.

또 광주일보는 지역 사회의 비리 척결과 민주화에도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 2002년 전남도청 공무원들이 건설업자와 짜고 입찰 프로그램을 조작해 대규모 공사를 수주하고 있다는 보도로 해당 공무원 구속과 입찰 프로그램 전면 교체라는 성과를 내 한국 기자상을 수상했다.

같은 해 전남도지사 등 단체장들이 자녀를 특채하고, 관용 여권을 불법 사용한 사실을 고발해 공직사회에 경종을 울리는 등 언론의 행정감시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다.

광주일보는 사회적 화두를 던지는 솔한 기사와 연재로 지역민의 사랑을 받아왔다.

광주일보는 외국인 100만명 시대를 넘어, 다문화 사회에 돌입한 국가적 흐름을 조기에 포착했다. 지난 2007년부터 4년여 동안 다문화 관련 시리즈를 심층 제작했다. 이 기간 동안 국내 취재는 물론 매년 외국에 특파원을 보내 다문화가정의 문제와 해결책을 제시했다.

광주일보의 다문화 시리즈는 '은누리안 리포트-국제결혼 다문화가정', '고마워요 당신의 땀방울-외국인 노동자의 삶과 꿈', '함께 열어요. 우리의 미래-다문화가정 2세들의 꿈·희망 대안 찾기' 등이다.

이를 통해 광주일보는 제 10·12회 국제엔네스티 언론상, 한국기자협회 이달의 기자상(2008년 12월), 제13회 일경언론상, 2011년 한국신문상, 2010년 광주·전남기자협회 대상 등 7개의 대상을 거머쥐었다.

지난해에는 영광원전 방사능 누출을 최초 보도하는 등 원전의 위험성을 알려 사회적인 공론의 장을 만들었다. 이 보도로 한국기자협회의 이달의기자상을 받기도 했다.

이와 함께 다양한 문화예술 행사를 통해 지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해 왔다. 4·19 직후 희생자 유가족 돕기운동에 이어 지역개발 캠페인, 광주학생회관 건립 캠페인, 어린이 교통문화운동, 무등산가꾸기 사업, 마을문고 도서보내기 운동, 남도학숙 캠페인, 재소련 한글학습실립 캠페인, '북녘 동포에 경운기 보내기', 상무대 반환운동, 5·18국립묘지 민주나무 헌수운동 등을 통해 지역발전에 힘써왔다.

또 호남예술제, 무등기 전국고교야구대회, 3·1절 전국마라톤대회 등 수많은 문화·예술·체육행사를 통해 다방면의 지역인재들을 길러내고 호남인들의 문화 갈증 해소에 앞장서고 있다. 최근에는 지역의 지도자들이 지역 발전을 위해 아이디어와 역량을 모을 수 있도록 '리더스 아카데미'를 개설해 운영 중이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1952년 2월11일자 본보 전신인 전남일보 창간호.



1980년 12월 1일자 광주일보 창간호.



3·1절 전국마라톤대회



본사는 창간호 꾸준히 무등산 사랑운동을 펼치고 있다. 1977년 제1회 무등산 갈대제.

## '예향' 복간 2년

신선한 기획·묵직한 담론  
지역 문화소통 견인차  
고품격 문예잡지 발돋움



광주일보 문화예술매거진 '예향'이 복간 2주년을 맞았다.

지난 2013년 창사 60주년을 맞아 11년 만에 재창간된 '예향'은 광주·전남 등 호남을 비롯한 경향 각지에서 인정받는 고품격 문화예술잡지로 발돋움했다. 21세기 문화사대에 걸맞는 새로운 콘셉트와 수준 높은 문화담론, 세련된 편집은 세대와 지역을 초월해 예향이 사랑받는 매거진으로 자리매김하는데 기여했다.

지금까지 예향은 남도의 문화와 숨결이 깃든 특화된 기사를 발굴, 생활 속에서 문화가 향유되고 소통되는 장을 구현했다. 2014년 복간 1주년을 기점으로 새롭게 선보인 '신남도문화여지도'는 남도의 22개 시군을 차례로 찾아 역사와 문화, 지역 음식과 특산물 등을 다각도로 조명했다.

또한 '사람이 브랜드다' '도시재생, 문화에게 물어봐' '아시아 스토리로드' 등 다양한 기획 기사를 발굴, 담론 제시는 물론 문화소통의 견인차를 담당했다. 이밖에 문화예술계를 대표하는 주인공들의 삶과 예술을 다룬 '예향 초대석', 남다른 열정과 고집으로 자신만의 예술세계를 가꿔온 '남도의 장인들' 등 문화와 숨결이 깃든 특화된 기사를 선보였다.

특히 오는 10월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 개관하면 광주는 문화수도의 가치와 비전을 실현할 토대를 갖추게 된다. 예향은 아시아문화중심도시가 기틀을 갖추고 발전의 토대를 마련할 수 있는 동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결집시킨다는 복안이다.

한편 지난 84년 10월 창간된 예향은 수차례 간행물협회 우수잡지로 선정오디는 등 17년 동안 호남인들의 사랑을 받으며 남도의 대표 잡지로 불려왔다.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문화융성  
관광에서 시작합니다
국민이 행복한 대한민국

**봄 관광주간  
가장 좋은 상사는  
휴가 가는 상사다**

이 좋은 날에 일을 해야지

이 좋은 날에 여행을 가야죠

가장 빛나는 14일

**2015 관광주간**  
(5.1~5.14)

올 봄, 추억 가득한 당신만의 관광주간을 만들어보세요

다양한 관광할인 혜택과 봄 여행의 즐거움이 가득한 관광주간!  
지금 바로 [관광주간]을 검색해보세요(http://spring.visitkorea.or.kr)